

7.6 건강한 마음 | 명사들의 심신건강법



Lee Seung-Hwan

언제나 푸른 門 아래에 서 있는 이승환

스무 살 같은 마흔네 살 이승환은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자신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고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옳건 그르건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의 삶을 살기 마련이며, 그는 건강하고 온전하게 20년의 음악인 인생을 달려왔다. 그런 그가 새로운 20년을 향해 나아가며 건강과 청춘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에디터 김나랑 프로그래머 리안우

어린 왕자라는 푸른 면류관

시간을 정신적 상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사람'이다. 어른이면서도 스스로 어른의 정신세계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가수 이승환은 그런 점에서 '젊은사람'이다. 어른의 부조리함과 잘못을 인식할 줄 모르는 몰이해에 그는 꽤 많은 상처를 받았음인지 불온한 어른의 세계에서 닳고 휘어지다 결국엔 자신을 버리는 일을 인생 최악의 사태로 경계해왔다. 결국 그에게 '별종' 혹은 '꿀통'이라는 조롱이 던져지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어린 왕자'라는 푸른 면류관을 수여받기도 했다.

'라이브의 황제' 이승환. 쉽없이 달려온 지난 20년에 방점을 찍은 이승환은 다가올 또 하나의 20년을 준비하며 최근 열 번째 앨범 <DREAMIZER>를 발표했다. 쇼케이스든 라디오 스튜디오든 노래를 부르는 순간엔 언제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열정의 라이브와 무대매너를 선보이지만 집에서는 만화와 게임 속 캐릭터를 축소한 피겨수집에 푹 빠져 지낸다. 스스로 자신의 정서가 20세에 멈춰있는 것 같다는 그는 자신의 새 별명인 '중년 오덕후(한 분야에 대해 마니아보다 더 심취해 있는 사람을 이르는 일본어 오타쿠의 한국식 속어)'가 결코 자신을 폄하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얘기한다.

“어떤 면에서 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공연이 없는 날은 집에 틀어박혀 음악을 듣거나 피겨를 만지거나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퍼레이드를 구경하면서 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시는 줄도 알아요.

다만 그렇게 살다보면 너무 메탈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집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대신 너무 유약해지지 않기 위해 운동을 해요. 아령과 '하이렛폼머신'은 기타나 드럼머신보다 더 좋아하는 내 애장품들이죠. 연주를 하는 사이, 이메일을 쓰는 사이나는 이 기구들과 대결하고 호흡하며 내 자신을 다듬고 향기가 나게 하죠. 그래야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청춘'이라는 체질을 위해 '사랑'을 노래한다

우리가 그의 노래에서 사랑과 젊음을 느끼는 이유는 얼마간의 허밍이 가미된 탄성 가득한 목소리에서 기인한다. 그의 데뷔곡인 '텅 빈 마음'에서부터 최근 발표된 '이별 기술자'를 차례로 듣다보면 새벽빛을 뒤덮는 하얀 눈발이 떠오른다. 바이올렛이 피어 있는 듯 위로 꽃 향기를 흠쳐 지나다 다시 풀어놓고가는 바람처럼 그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다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숨결이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듣다보면 어쩔 수 없는 '사랑의 갈증'에 시달리고 만다. 사랑을 테마로 한 멜로디와 리듬은 너무나 오래도록 표현상의 구태를 남발한 탓에 그의 개성적인 음악적 욕구를 오히려 강렬하게 자극하는 듯하다. 똑같은 발라드를 똑같이 부르는 것, 상투적인 코드 스케일에서 벗어나겠다는 일관된 노력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똑같은 노래일 수 없다.

“음악과 사랑의 관계, 그건 필수불가결한 사이죠. 혹자는 우리 가수들에게 왜 사랑 노래만 부





르느냐고 하지만 세상에 사랑 노래가 없다면 음악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통해 나를 보는 일이죠. 나를 통해 나를 보는 일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너에게로 가서 나에게로 완성되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고, 내 음악에 그런 경험과 사연을 담으려 하죠. '가을 흔적'이나 '크리스마스에는' 같은 서른살 이전의 노래는 모두 꾸며진 거짓 사랑이지만 그 후론 난 좀 더 내 삶과 진실이 담긴 음악을 하려했어요. 9집의 '남편'은 일본 영화 <비밀>을 본 후의 느낌을 적은 노래인데 듣고 있으면 영화만큼이나 슬퍼지죠."

이승환은 매일매일...

전화소리에 눈을 뜨면 대개 10시 40분쯤. 아침에 일어나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흥얼댔 멜로디와 리듬을 찾는 일이다. 그는 이걸 '마약 송'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원칙이 있는 건 아니다. 간밤에 본 영화에 삽입된 'Lady in Red'가 될 수도 있고 데미안 라이스의 'Delicate'가 될 수도 있으며 윈터걸스의 'Different Tears'가 그 날의 마약송이 될 수도 있다. 우연히 만난 리듬을 부르며 반복되는 일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다리는 게 그가 견지해온 태도인 듯싶다.

"지난날들에 대한 후회가 왜 없겠어요. 가능했지만 가지 않았던 삶의 다른 길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던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건 만약이라는 가정 일 뿐 '현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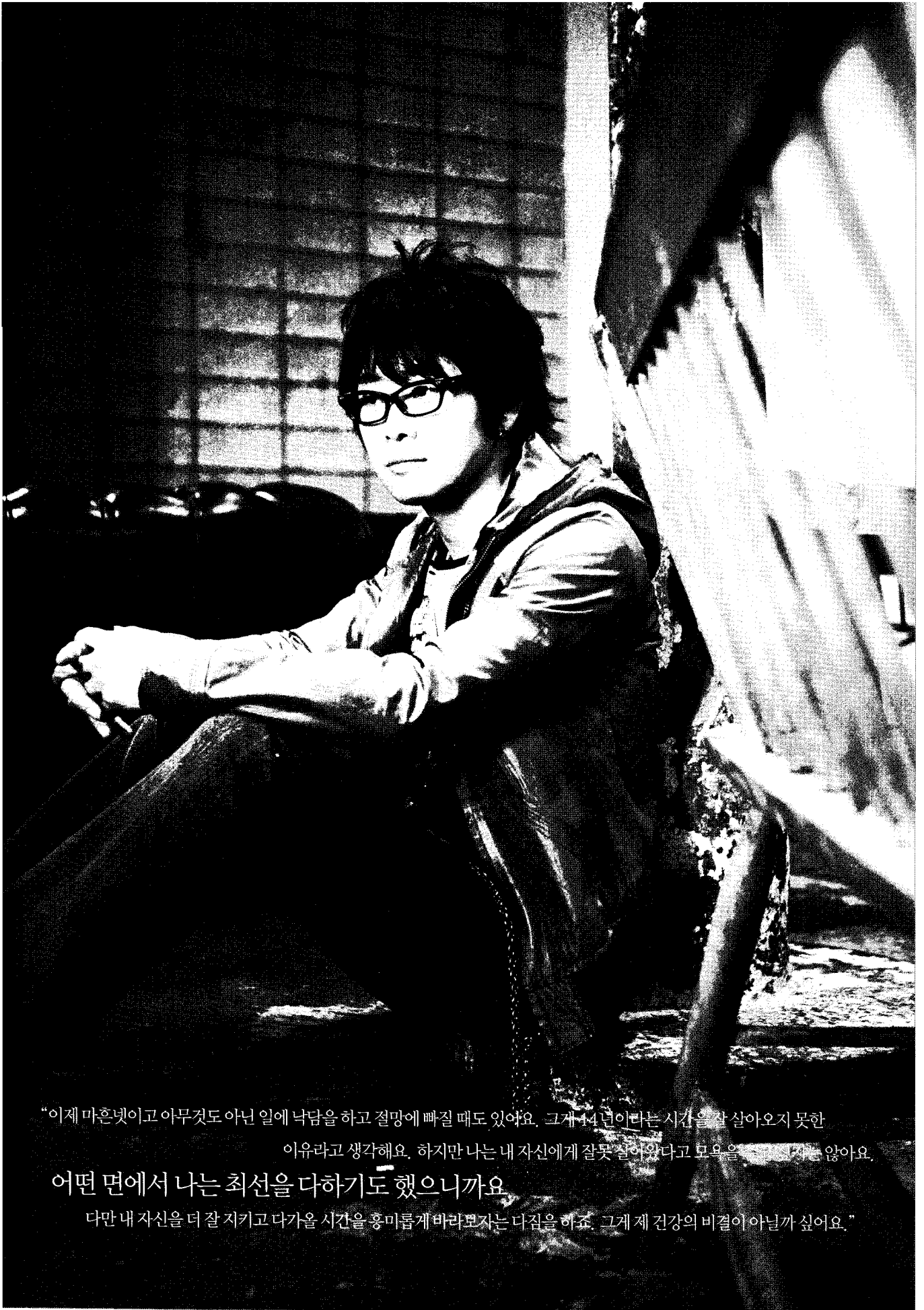
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마흔넷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담을 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나는 그게 44년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오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내 자신에게 잘못 살아왔다고 모욕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기도 했으니깐요. 다만 내 자신을 더 잘 지키고 다가올 시간을 흥미롭게 바라보자는 다짐을 하죠. 그게 제 건강의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이승환은 지금 혼자고 모든 형태의 고독 속에 던져져 있다. 성격 때문에 혼자고, 특출하고 특이한 본성 때문에 혼자며, 오만한 엄격성과 굽히지 않는 원칙과 판단 때문에 혼자다. 자기 음악,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그가 요구하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 혼자인 셈이다.

"주변에서 '지금 상황이 힘들지 않아? 괜찮겠어?'라고 물으면 '여자와 헤어진 고통에 비하면 50분의 1밖에 안 돼'라고 얘기하죠. 복잡한 문제들을 수습할 때면 왜 이렇게 불행할까 싶지만 일보다 몇 십배 더 아픈 게 사랑이었고,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사랑한 두 배의 시간을 아파한다는 말에 매달리며 조금만 더 참자고 주문을 걸죠. 사랑이 뭐 마음대로 되나요. 몇 해 전부터 콘서트 때마다 이전 새로운 사랑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난 감(感)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장소팔·고춘자' 처럼 서로 치고받는 핑퐁 게임의 랠리를 즐기죠. 그러니까 밝고 재치 있는 유쾌한 여자를 더 사랑한다고 봐야겠죠. 싫어하는 유형이요? 특별히 그런 건 없지만 화장실의 10와트 전구 같은 어두운 사람이 힘들긴 해요."

사랑이 상처에 바르는 약인지 아니면 더 깊은 종류의 상처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장 생생하게 느끼는 누군가는 너무도 절대적인 존재다.

데뷔와 함께 20년이 지나고 이제, 또 다른 20년을 맞는 그는 새로운 사랑의 결실로 그 반환점을 장식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결승점인 40주년에는 여전히 서머룩페스티벌에 어울리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한다. 데뷔 40주년이 되는 2029년에는 '내쳐달리는 디너쇼'를 하겠다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지금껏 없었던 하나의 '무적 전설'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금부터 지켜보는 건 어떨까! ☺



“이제 마흔넷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담을 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게 44년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오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내 자신에게 잘못 걸어왔다고 모욕을 느끼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내 자신을 더 잘 지키고 다가올 시간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다짐을 하죠. 그게 제 건강의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